傳統住居建築의 陽宅的原理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Yang Taeg in Traditional Korean Housing.

朴 炫 章
Pak Hyun Jang

Abstract

This study is to find mental element and principle for building as the side of traditional ideas and to understand dwelling from and style by this wag.

So we can understand yang taeg theory as a part of feng shui that controls the mental, field of traditional architecture.

The results may besummarised as follows.

1. Mentalprinciple of traditional architecfure being understood as a "역" is to result in not the concept of shape as materials and in but that of phase as a spririt.

2. In yang taeg theory, architectural behavior (as selecting site, building and the day for building) is made from the base of that, a human being as a part of universe.

3. Geomantic aspect, to being, laid in an fying a human being and nature as spatial, time concept.

4. The concept of domain in feng-shui is found in village as well as in house.

1. 序 論

史的인 여러 環境的 要因에 의해 전개되어온 傳統住居는 現在의 視覺으로도 조명될 수 있겠지만 史的인 측면으로 들여다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史的인 측면의 건축은 外的으로 드러나는 形態와 樣式들을 論할 수도 있지만 그 建築的 行爲에 관계되는 內的인 原理들을 확인함으로써 더욱 가깝게 接近할 수 있을 것이다.

本 硏究의 目的은 傳統住居建築 속에 內在되어 있는 정신적인 要素와 그 原理들을 究明하여 傳統建築思想의 內的 解析에 관계되는 一面을 照明하는데 있다.

傳統建築物의 樣式이나 形態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內的인 要因으로서 갖가지의 民間信仰形態, 이를테면 風水地理나, 土俗信仰, 또는 여러 宗敎的인 영향들이 있겠다.

①이러한 內的 要因들이 어떠한 方法으로 건축에 적용되는지를 알기위해 본교에서는 전통건축의 思想的 原理들을 파악하여 그 內容이 갖는 意味와 象徵에 接近하는 方法을 택하였는데 여기에서는 風水地理에 관계되는 陽宅的인 범위로 국한시켰다.

2. 傳統建築의 思想的 背景

2-1. 東洋的 自然觀

自然의 섭리대로 사는것을 最上의 理想으로 삼는 東洋人은 自然과 人間을 별개의 것으로 분리시키는 입장이 아니고 自然의 운명적 질서안에 人間을 포용하는 관계를 살필 수 있는데 위로는 天時(四時, 즉 春夏秋冬)인 自然的 時間의 運行을 본받고 아래로는 水土(土水와 風土)가 일정불변의 이치와 법칙에 지배되고 있는 그것을 따름이다.[1]

즉 마음의 本體는 宇宙의 本體와 같으므로 사람도 짜여있는 바탕에 있어선 하늘과 다를 바가 없으며[2] 세상만물이 모두 나와 一體가 된다는 뜻이다.[3]

이처럼 物質的 토대위에 精神的 가치를 포함시킴은 自然과 人間의 調和, 融合 그리고 中庸의 道를 제일로 삼고 있는 東洋人에 있어, 自然은 擴散된 자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人間自身이 바로 自然의 一部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老子는 道가 지니는 無爲하고 자연스런 德을 터득함으로서 宇宙의 한 構成要素로서의 人間本然을 회복하고자[4] 하였는데 이는 곧 自然主義的 宇宙觀[5]을 말하는 것임을 일별할 수 있으며 東洋人의 自然觀이 自然과의 調和, 自然속의 人間에 그 根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2 易思想

傳統建築의 思想的 背景을 검토할때 그 바탕이 되는 原理는 곧 易理인 것이다. 宇宙生成의 理論이며 그 時代의 生活樣式全部이고 그들의 存在有無가 달려있을 만큼 天文曆數로 부터 종교, 윤리, 정치, 병법, 산업, 예술에 이르기까지 作用하지 않는 곳이 없다. 易理란 결국 事物을 정당하게 認識하려는 가장 오래된 학문이라 할 수 있다.[6]

易의 原理는 宇宙를 하나의 生命體로서 파악하는데 있으며 自然의 法理를 模範해서 人間의 事理를 규정한 바[7] 人間을 天地의 中心 즉 三才의 一位[8]로 하여 지상에 있는 肉體로서 天上에의 精神을 가지는 中庸的인 存在로서 說明하였다.[9]

易思想에서 發生된 陰陽五行說은 東洋的 哲學의 가장 中心된 要素이다. 우리가 흔히 陰陽五行說이라고 말하지만 本質的 內容에 있어서는 陰陽과 五行이 전연 別個의 것이며 단지 인생의 榮枯를 판별하는 利用厚生의 점에서는 目的이 동일하고 또 兩者를 이용하거나 발전시키려면 서로 제휴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兩者를 陰陽五行說이라고 合成하여 부른다.

2-3. 陰陽五行說

陰陽說은 宇宙의 모든 事物을 陰과 陽으로 나누어 보고 宇宙의 일체변화가 陰과 陽의 상호작용에 의거한다는 世界觀을 세우고 있다. 즉 宇宙의 현상을 陰陽의 相對的 관계의 原理에 의하여 太陽, 太陰, 小陽, 小陰의 思想으로 나누고 이것을 다시 乾= 兌= 離= 震= 巽= 坎= 艮= 坤= 의 相對形式으로 나누어 八卦라 하며 八卦에서 다시 六十四卦가 생성되는 것이다. 즉 우주전체를 兩分해서 三次만에 八卦가 되고 六次만에는 六十四卦가 되는 것이니 모든 事物을 이와같이 兩分해서만 그 本質을 把握할 수 있다는 것이다.[10] <그림1참조>

1) 車相轅 역, 大學 中庸, 동서문화사, 1977, P134. 「… 上 律天時 下拾水土…」

2) 洪自誠,菜根譚, 乙酉文化社, 1982, P.162. 「心體는 便是天體니…」

3) 洪自誠, 앞의책, P103. 「…萬物 五一體…」

4) 金學主, 老子와 道家思想, 태양문화사, 1978, P.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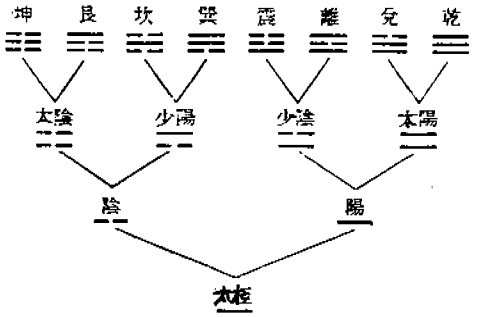
5) 朴星來 編著, 中國科學의 思想, 共和出版社, 1978, p.50.

6) 朴容淑, 神話體系로 본 韓國美術論, 一志社, 1975, P.7

7) 柳正基, 易經新講, 桂民社, 1968, p.29.

8) 李乙浩, 安浩相 共著, 三一神話, 三聖出版社, 1977, p.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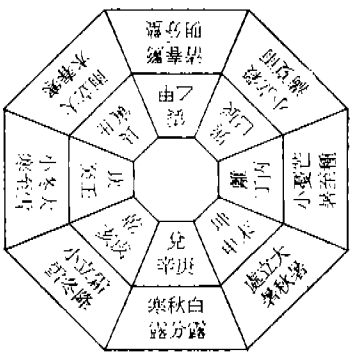
9) 柳正基, 앞의책, p.405.



<그림1>陰陽兩分法

老子는 『萬物은 陰氣를 包含하고 陽氣를 지녀 渾然이 하나로 풀려 和合한다.』[11] 라고 했는데 이것은 萬物의 成分인 陰氣와 陽氣를 자기 內部에 지녀서 仲和의 氣에 의해 하나하나의 사물이 유기적인 전체로서의 造和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漢代에 이르러의 陰陽說은 儒家와 道家들에게 哲學思想의 表現으로서의 重要性을 가지고 思想界에 등장하게 되었으며 특히 八卦의 속성을 空間的인 陰陽과 時間的인 陰陽으로 配合시켜 東方과 春節은 小陽, 南方과 夏節은 太陽, 西方과 秋節은 小陰, 北方과 冬節은 太陰으로 나타내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空間的인 方位에서는 八卦만으로 配屬시켰다.[12]
<그림 2 참조>



<그림2>方位節氣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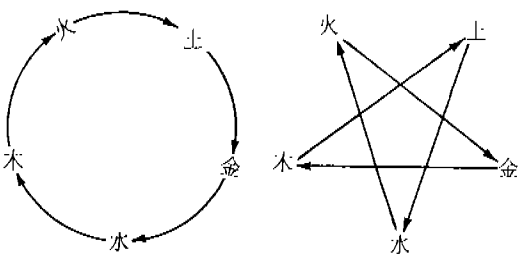
五行이라는 것은 萬有의 活動要素를 水火木金土로 나누어 이 五行의 相互作用에 의하여 자연현상이 運行되며 人事의 吉凶禍福이 支配된다는 것으로써 世界觀을 삼는 것이다.

陰陽에서는 宇宙의 현상을 相對的 관계로 관찰하였지만 五行說에서는 萬有를 構成的 관계로 관찰하여 五行의 離合, 集散, 多少, 有無에 의하여 自然現象은 물론이고 人事의 모든 일에까지 作用된다고 보았다.

五行의 상호관계에서는 相生과 相剋의 두 原理가 있는데 이것이 五行說에서 가장 중요한 法則으로 되어있다. <그림 3 참조>

相生原理 / 金生水 水生木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相剋原理 / 金剋木 木剋土 土剋水 水剋火 火剋金



<그림3> 相生相剋圖

이와같은 原理가 발달됨에 따라서 五行은 五方, 五色, 五季 등에 配當하여 여러가지 自然原理로 되었다.[13]

五行 / 木 火 金 水 土
五方 / 東 南 西 北 中央
五色 / 靑 赤 白 黑 黃
五季 / 春 夏 秋 冬 四季 락

또한 數와도 作用하여 다음과 같은 數의 五行이 成立된다.[14]

10) 柳正基, 앞의책. p.10.

11) 盧台俊譯, 道德經, 弘新文化社, 1978, P.156.
12) 柳正基, 앞의책, p.20.
13) 金得榥, 韓國思想社, 南山堂, 1963, p.264.

數 /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五行 / 水 火 木 金 土 水 火 木 金 土

陽宅大全에 의하면 『住宅을 짓는데 陰陽五行以外의 法은 없다… 陰陽이 配合하여 富와 貴를 전부 만드니 이것으로 洛書之數의 生剋利花와 陰陽이 잘 配合되어 이로서 住宅을 아름답게 지음이라』[15]고 했는데 이는 곧 住宅風水의 原理가 陰陽五行을 大前提로 이룩된 것임을 말해준다.

3. 傳統建築思想의 內的解析

3-1. 宅地

宅地를 選定하는데 있어서는 먼저 地形地勢를 살펴 風水的 成局을 관찰하였는데 이를 相形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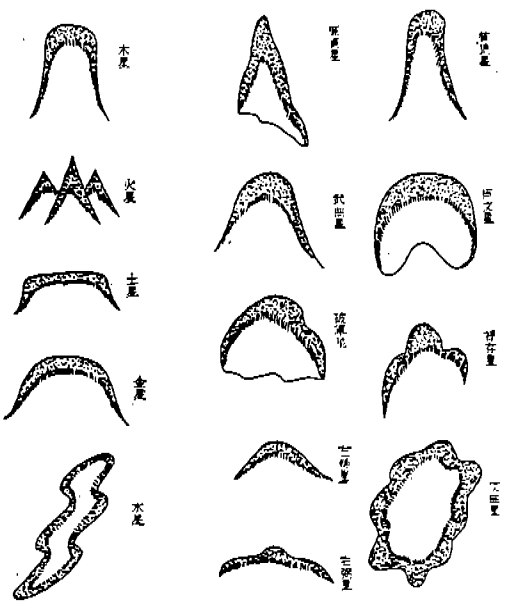
相形이라는 것은 風水的 成局을 이루는 모든 要素들의 形象을 들여다 보는 것을 뜻한다.

모든 存在하는 것의 안을 열어 보는 것을 象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밖으로만 볼 때 그것은 形이라고 할 수 있다. 易理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形보다 象이다. 즉 形을 정당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결국 象을 옳게 봄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이다[16]

神搜經에 의하면 『하늘에는 九星이 있고 땅에는 九宮이 있어 서로가 相順相宜하면 人財가 크게 利하고 …』[17]라는 記錄이 있는데 이는 天의 象과 地의 形에 대한 相生相剋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相形에서는 五星의 正體를 기본으로 變體의 形과 象을 만들어 天과 地와 人의 造化를 위해 運用하였다.

九星은 五星의 變體로서 貪狼星, 巨文星, 祿存星, 文曲星, 武曲星, 兼貞星, 破軍星, 左輔星, 右弼星을 말한다. 五星의 正體는 本星이 直, 火星이 光, 土星이 横, 金星이 圓, 水星이 曲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五星의 形相에 대해서는 하늘에 있는 星形을 본따서 形象化 했다고도 하고 혹은 木 火 土 金 水의 속성을 상징한 것이라고도 한다. <그림 4 참조>[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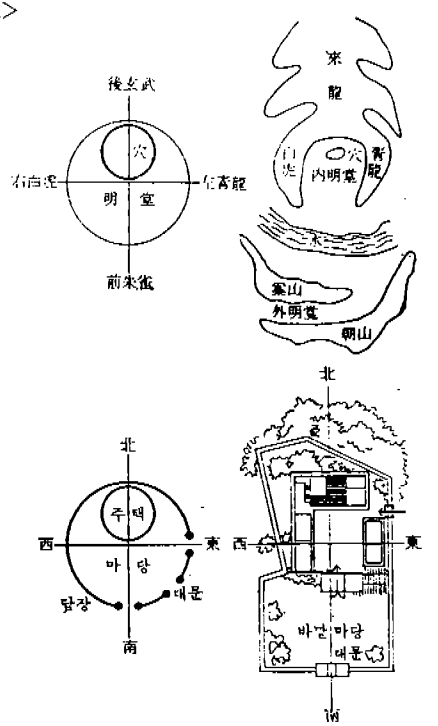
<그림4>五星正體圖
九星正體圖

地形地勢를 본다함은 곧 山의 形象을 보는 것인데 산맥이 뻗어 내리다 멈춘 곳을 成局이라 하고 成局에서 氣가 모인곳을 穴이라 한다. 이때의 穴을 둘러싼 山, 즉 後玄武, 前朱雀, 左青龍, 右白虎를 風水에서는 四神砂라 하는데 이것은 명확한 領域概念[19]으로서 地域의 限定[20]을 이루고 있다. 玄武는 主山으로서 山脈을 타고 흐르는 生氣를 明堂의 穴로 주입시키는 역할을 하며 朱雀은 案山으로 玄武와 對應관계로 볼 수 있다. 青龍과 白虎는 風水의 成局으

14) 천機大要, 京城永昌書館, 召和十一年, p.1.

15) 住宅大全, 수卷九, 陽宅神 經心 法, p.2.
16) 朴容淑, 앞의책, p.7.
17) 陽宅大全, 앞의책, p.25.
18) 村山智順, 朝鮮의 風水, 조
19) 兪在賢, 울산공대 연구 논문집, 제10권2호, 1979, p.103.
20) 張聖浚, 大韓建築學會誌, 22권85호, 1978, p.20.

로 볼 때 불가결의 요건인 長風, 즉 바람을 막는데 있으며 陽宅에서는 담벽이나 좌우의 부속건물이 이와같은 개념으로 解析된다.<그림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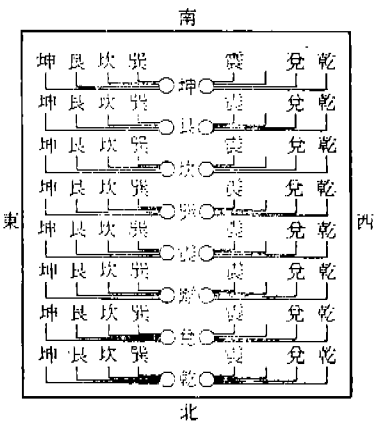
<그림 5> 風水的 局面의 槪念圖

宅地를 論하는데 있어 長風과 함께 또하나 重要한 것은 물길을 논하는 得水이다.

물은 局穴을 향해 구심적으로 中和, 協心의 정세를 가지고 천천히 흐르는 것은 適格으로 삼는다.[21]

『집터를 잡으려면 반드시 水口가 꼭 닫힌 듯하고 그 안에 들어 펼쳐진 곳을 눈여겨 보아서 구할 것이다. 그러나 山中에서는 水口가 닫힌 곳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들판에서는 水口가 닫힌 곳이 어려우니 반드시 거슬러 흘러드는 물이 있어야 한다』[22] 또한 陽宅수解에도 『… 넓은 들에서는 발밑만 보지말고 물이 돌아나가는 곳의 높은 부분에 옳은 자리가 있으니 平地의 집은 이곳에 짓는 것이 要決이라』[23]는 기록이 있어 陽宅의 자리는 규모가 크고 山水가 모여 成局하는 地勢로서 물이 깊이 돌아나가는 곳을 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처럼 陽宅에서는 山과水, 햇빛의 自然條件을 얻기 위해 四神相應에 適合한 宅地를 선택했고 이때의 地勢는 대부분 背山臨水, 北高南低에 따른 自然地理的 조건을 갖추어 北西쪽이 높고 南東쪽이 낮은 方向을 택했는데 入學圖說의 先天方位해석에서는 『乾이 西와 北에서 시작되고 坤이 東과 南에서 끝나니 陽은 西北에 있고 陰은 東南에 있다. 땅의 形勢는 西北이 높고 東南이 낮기 때문이다.』<그림 6 참조> 라고 한 것으로 보아 易理는 곧 自然의 形象에 바탕을 두었고, 이를 原理로 한 陽宅의 地勢論도 自然에 순응하고자 하는 人間의 노력에서 나온 것임을 볼 수 있다.



<그림 6> 先天方位方圖

3-2. 坐向

집은 자리 잡는데에 따라 坐가 생기고 그 앉은 坐에 따라 바라다 보는 向이 생기며 方向과는 槪念이 다르다. 한 場所는 수많은 方向을 가지고 있으나 選好性에 의해 결정 지어지는

21) 李應德, 韓國思想의 源泉, 傳英文庫80, 1977, p.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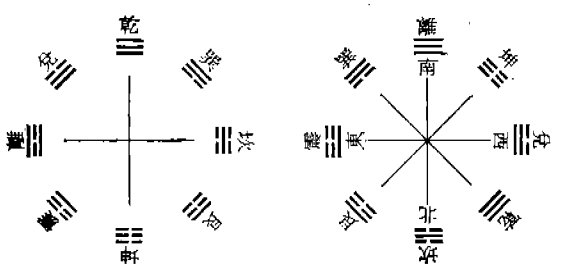
22) 李贄成譯, 擇里志, 乙酉文化社, 1974, p.162.

23) 陰陽地理風水全書, 下編卷一, 大方出版社, 中華民國紀十八年 台北, p.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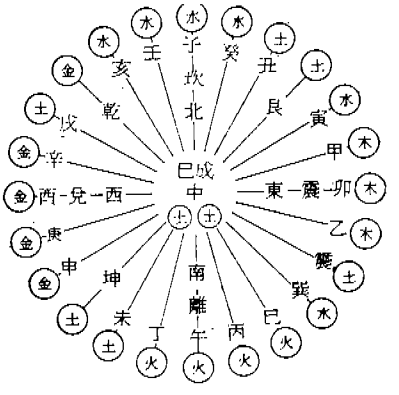
坐向은 한가지 뿐이다.[24]

坐向을 분별하기 위한 方位로는 伏羲先天方位와 文王後天方位가 있는데, 先天方位는 天理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聖人이 열었고, 後天方位는 天理가 이미 드러나 聖人이 利用한 것이므로 後天方位는 사용되는 數이다. <그림7참조> 즉 전자는 天地의 定位로서 고정된 자리이고 후자는 변화해서 造化를 이루는 흐름의 數이다.

伏羲先天方位圖　　文王後天方位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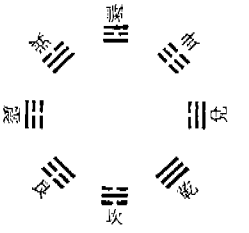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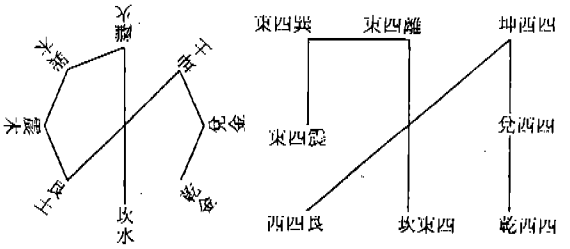
<그림7>先後天方位圖



<그림8>二十四方位圖

方位의 構成은 五行, 八卦, 十干, 十二支를 配合시켜 二十四方位로 論하는데 空間的인 八卦와 時間的인 十干十二支를 陰陽調和와 五行運行法則에 따라 배열 시켰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坐向이 自然的 조건에 의해 선택된 방위 그 자체로만 決定되는 것이 아니고 易理를 통한 形而上學的인 方法으로 人間과 自然을 合一시키는 條件에 의해 決定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8참조>





<그림9> 八宅總圖　八宅分圖　東西四宅圖

住宅을 建立하는 것을 陽宅에서는 造屋, 造宅 또는 建屋, 建宅이라 부른다.

宅地가 선정되면 여기에다 家屋을 짓게 되는데 主建物과 부속사 및 담장, 우물 등 주거에 관련된 여러 範圍를 좌향에 따라 配置한다.

陽宅에서는 坐向에 의한 住居의 分類를 크게 東西宅과 西四宅의 두가지로 區分하는데 東西宅은 東, 南, 東南, 北의 4位로 정하고 西四宅은 西, 南西, 北西, 北東의 4位로 정하여 八宅을 論하고 있다. <그림 9참조>

이렇게 東四宅과 西四宅을 나누어서 分類한 기준은 음양팔괘의 속성(天, 地, 山, 澤, 水, 火, 雷, 風)과 五行原理에 있는데 東四宅은 西四宅의 位를 범하지 못하고 西四宅은 東四택의 位를 범하지 못한다.[25]

24) 張聖浚, 앞의책, p.20.

25) 陽宅大全, 卷一, 八宅四書, P.6. 「…東西不得西+四西四不得犯東」

	西四宅				東四宅			
方位	北西	南西	北東	西	北	南	東	南東
卦名	乾	坤	艮	兌	坎	離	震	巽
卦象	天	地	山	澤	水	火	雷	風
五行	金	土	土	金	水	火	木	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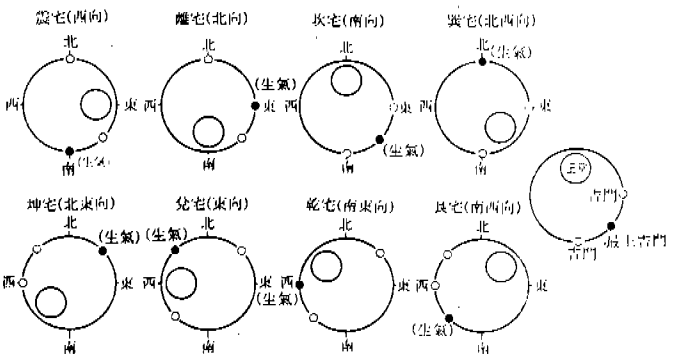
東西四宅에 있어 가장 重要시 되는 것이 正當[26]과 大門과의 관계인데 大門은 房과 부엌, 화장실과 함께 住宅의 構成要件으로 취급되었으며 이를 家屋의 四柱라고도 한다.[27] 또한 陽宅三要에서도 三要는 門, 主, 로서 門은 大門을 말하고 主는 主가 되는 房, 는 을 意味한다고 하는데 住宅의 坐向과 관련된 要素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大門임을 알 수 있다.

家坐 / 出入門方	북서〈戌乾亥〉	북〈壬子癸〉	북동〈丑艮寅〉	동〈甲卯乙〉	남동〈辰巽巳〉	남〈丙午丁〉	남서〈未坤申〉	서〈辛庚酉〉
북서〈戌乾亥〉	歸魂	六殺	五鬼	天乙	禍害	絶命	延年	生氣
북〈壬子癸〉	六殺	歸魂	五鬼	天乙	生氣	延年	絶命	禍害
북동〈丑艮寅〉	五鬼	歸魂	天乙	六殺	絶命	禍害	生氣	延年
동〈甲卯乙〉	五鬼	六殺	歸魂	天乙	延年	生氣	禍害	絶命
남동〈辰巽巳〉	天乙	五鬼	六殺	歸魂	天乙	禍害	絶命	生氣
남〈丙午丁〉	歸魂	天乙	五鬼	六殺	歸魂	天乙	生氣	延年
남서〈未坤申〉	六殺	五鬼	天乙	歸魂	六殺	五鬼	禍害	生氣
서〈辛庚酉〉	五鬼	天乙	歸魂	六殺	五鬼	天乙	延年	禍害

<그림10> 出入門吉凶方

天機大要 起造門[28]편에 보면 家宅의 坐와 出入門方의 吉凶方<그림10참조>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生氣, 天乙, 延年門은 吉하고 歸魂門은 平하며 六殺, 五鬼, 禍害, 絶命門은 凶하다』라고 했다.

이는 하늘의 九星과 대응되는 땅의 九宮을 각각 吉, 平, 凶으로 구분하여 출입문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본다. 이와같은 출입문의 吉凶方을 陽宅에서 論하는 東西四宅의 正當과 大門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서로 일치됨을 알 수 있다. <그림 11 참조>



<그림 11>正當과 大門의 關係構成圖

住宅은 建立함에 있어 東四宅과 西四宅의 位를 선택하는 方法은 家主의 出生年으로 계산하는데 이것은 命宮이라 한다.[29] 命宮은 六十甲子로 계산하여 六十一年만에 자기가 낳은 해를 만나게 되는데 이를 東西四宅의 八方位에 적용시켜 그 位를 정하게 된다.

이와같이 坐位가 결정되면 그 坐位의 相形에 맞추어 住宅의 相形을 造化시켰으며 住宅의 相形은 五行의 속성을 따랐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6) 안채(본채)를 뜻하는 것으로 主人이 居하는 곳을 말한다.

27) 張龍得, 明堂論, 에밀레미술관, 1973, p.110.
28) 天機大要, 앞의 책, p.23.
29) 장용득, 앞의책, p.116.

金宅	戌乾亥：西北	金宅은 밝아야 하고 어두운 것은 피한다.
	辛庚酉：西	너무 어둡거나 밝은 것을 피해야 한다.
土宅	未坤申：西南	土宅은 집을 넓게 지어야 하고 밝은것은 피해야 한다
	丑艮寅：北東	집이 넓고 단단하여야 한다.
木宅	甲卯乙：東	집을 길게 지어야하고 얕으면 좋지 않다.
	辰巽巳：南東	집이 얕아야 하며 두꺼운 것은 피한다.
火宅	丙午丁：南	폭차게 지어야 하며 허하면 좋지 않다.
水宅	壬子癸：北	집이 깊어야 하고 틀어남을 피한다.

이처럼 家屋의 相形과 各 宮(八方位)의 相形을 배합 시킴은 宮이 形을 剋하거나 形이 宮을 剋하는 것을 피함을 原則으로 하였기 때문이다.[30]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東西四宅의 位에 사람의 命宮을 배합시켜 坐位를 決定한 다음 다시 坐位의 相形과 家屋의 相形을 配合 시킴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天相-地相-家相-人相을 하나로 보는 萬物一體의 東洋的인 自然觀에서 연유됨을 말할 수 있겠다.

3-3. 擇 日

擇日은 家宅의 建立 또는 修理를 위한 하나의 과정적 行事로서 天運과 地運의 吉局을 얻어서 命宮과 합한 후 吉日을 선택, 大宇宙와 人間을 時間的으로 일치시키는 行爲이다.

擇日은 어떤 일이건 치를 적마다 部門別로 반드시 그에 適合한 干支의 年 月 日 時刻을 선택하는 것을 擇宜忌의 方法으로 하였는데[31] 建築的 行爲에서도 모든 분야에 걸쳐 적용되어 미리 선택한 日辰에 家屋을 건립하거나 修理하였는데 天機大要[32] 陽宅편에 보면 다음과 같은 조목의 吉日들을 指示해 놓았다.

·基地吉日 / 터 닦는 날
·定礎吉日 / 주춧돌 놓는 날
·竪柱吉日 / 기둥 세우는 날
·上樑吉日 / 보 얹는 날
·蓋屋吉日 / 지붕 덮는 날
·造門吉日 / 문을 만들어 다는 날
·穿井吉日 / 우물을 파는날
·作 厠 / 변소를 짓는 날
·作馬側日 / 마굿간 및 축사를 짓는 날
·塞門吉日 / 문을 막거나 없애는 날
·塞路吉日 / 길을 막거나 없애는 날
·動土吉日 / 흙을 다루는 날
·移居吉日 / 移徙 및 入宅하는 날

이러한 建築行爲에 있어서의 吉日과 忌日의 區分은 집을 짓는 家主의 生年, 月, 日, 時에 좌우되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 까지나 時間的으로 運行되는 것이기 때문에 人事와 일치시켜 進行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同書竪造宅舍[33]편에 보면 『家屋을 건립하는데 있어 工力이 미치지 못하면 마땅히 吉日을 가리어 먼저 一間을 지어 吉日과 應하고 뒤에 연속 달아서 竪立하여도 無妨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擇日에 의한 時間의 運行이 家屋의 建立에 重要한 관점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同書論修方禁忌편에 『안방(正當)처마 밑 낙숫물 떨어지는 곳으로 부터 一百二十步안으로 二十四方位의 忌하는 바는 그 主人의 年月이 닿는 凶方이니 … 一百二十步밖은 一切 方向을 不問한다.』[34]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家屋에 있어서의 擇日이 미치는 空間的 限界로서 건축행위의 영역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통건축에 있어 擇日에 관련된 모든 건축적 행위 즉 開基日, 立柱日, 定礎日, 上樑日 등은 家主의 生年月日의 時運에 따라 行해지므로 이

30) 陽宅大全, 卷九, 앞의책, P.7. 「…宮若剋形人不利形若剋宮財 不生…」

31) 天機大要, 앞의책, p.19.

32) 明나라 林紹周의 原著 英粗朝 陰陽科 출신인 池日가 增補한 冊

33) 天機大要, 앞의책, P.72. 『論竪造宅舍工力未辦宜擇吉日先竪 起一間以應日子以後連接工夫畢竪赤無妨也』

34) 앞의책, p.71.

경우의 建築은 自然의 法理가 築成시키는 天作이라 할 수 있다.

4. 結 論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傳統建築의 思想的 背景과 原理를 통하여 그 時代에 存在했던 建築的 行爲나 의식구조를 파악함은 전통건축에 관한 造形手法의 이해를 위해서 必要한 一面이라고 생각되는 바, 아래와 같은 몇가지의 결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통건축의 思想的 原理는 易理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形이라는 槪念보다는 象의 槪念으로서 理解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건축물 자체가 지니는 形態的인 문제를 넘어서 意味的인 原理로 展開되기 때문이다.

둘째, 하늘과 땅과 집과 사람을 하나의 相形으로 調和시키려는 努力은 宇宙를 하나의 生命體로서 파악하려는 東洋的 自然觀에서 연유됨을 볼 수 있는데 陽宅論의 宅地選定에서 부터 造屋, 擇日에 이르기 까지의 모든 建築的 行爲는 人間을 떼어서 보는 立場이 아니고 宇宙의 한 덩어리로서 把握하려는 상호관련적 過程을 가지고 있다.

셋째, 坐向은 自然地理的인 條件에 의해 선택되는 方位 그 자체로만 決定되는 것이 아니고 易理를 통한 形而上學的인 方法으로 人間과 自然을 合一시키는 조건에 의해 결정됨을 볼 수 있는데 이를 空間的인 合一의 槪念이라면 自然의 時間的 運行에 융화되려는 擇日은 時間的인 合一의 槪念으로 볼 수 있다.

네째, 地勢選定에 있어서의 四神砂는 領域限定의 槪念으로서 家宅에 있어서도 그 槪念的인 관계가 적용됨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전통건축의 內的原理에 관한 部分的인 범위의 意味와 象徵에 대해서 考察하였다. 이러한 전통적 空間原理들을 現代的인 관점에서 論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傳統建築思想의 內的體系를 바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必要하다고 생각되며 문헌연구의 體系가 廣義的으로 定立되고 實證的 比較考察의 範圍를 확대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課題라 하겠다.

參考文獻

1. 車相轅 譯, 大學 中庸, 동서문화사, 1977
2. 洪自誠, 菜根譚, 乙酉文化社, 1982
3. 金學主, 老子와 道家思想, 태양문화사, 1978
4. 朴星來 編著, 中國科學의 思想, 共和出版社, 1978
5. 朴容淑, 神話體系로 본 韓國美術論
6. 柳正基, 易經新講, 桂民社, 1968
7. 李乙浩, 安浩相 共著, 三一神話, 三星出版社
8. 盧台俊 譯, 道德經, 弘新文化社, 1978
9. 金得榥 , 韓國思想社, 南山堂, 1963
10. 天機大要, 京城永昌書館, 昭和十一年
11. 住宅大全,搜卷九, 陽宅神 經心 法,
12. 村山智順, 朝鮮의 風水, 조
13. 兪在賢, 울산공대 연구 논문집, 제10권2호, 1979
14. 張聖浚, 大韓建築學會誌, 22권85호, 1978
15. 李熙德, 韓國思想의 源泉, 傳英文庫80, 1977
16. 李贄成譯, 擇里志, 乙酉文化社, 1974
17. 陰陽地理風水全書, 下編卷一, 大方出版社, 中華民國紀十八年台北,
18. 陽宅大全, 卷一, 八宅四書, P.6.『…東西不得西四西四不得犯東』
19. 안채(본채)를 뜻하는 것으로 主人이 居하는 곳을 말한다.
20. 張龍得, 明堂論, 에밀레미술관, 1973
21. 明나라 林紹周의 原著 英粗朝 陰陽科 출신인 池日가 增補한 冊